무등산 자락에 전국 최대 생태탐방연수원 들어선다

2017년까지 250억 들여 산악박물관·문화시설 조성

원효사지구 유력… 자연사박물관 건립은 사실상 무산

국립공원 무등산 자락에 전국 최대 규모의 생태탐방연수원이 들어선다. 대신 그동안 광주시가 추진해 온 무등산 자연사박물관 건립은 사실상 무산됐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50억원을 들여 부지면적 2만㎡(건축면적 1만㎡) 규모의 생태탐방연수원을 건립할 계획이다.

최근 기본설계용역비 5억원을 확보했으며, 산악박물관과 연수시설, 문화시설, 숙박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위치와 각 시설의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건축면적이 1만㎡에 이르는 등 넓은 면적으로 볼 때 원효사지구가 유력시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 중 생태탐방연수원이 들어선 곳은 북한산 국립공원이 유일하며, 지난 2011년 6월 176억원을 들여 개원했다. 개원 이후 인기 시설물로 자리잡았지만 건축면적이 무등산의 22%수준인 2206㎡로 좁고, 숙박정원도 100여명에 불과한 것이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북한산 생태탐방연수원에서는 시민등산반·청소년 등산반, 숲 유치원, 환경성 질환 치유 프로그램, 자연환경해설사 양성, 환경작업 체험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악박물관도 들어서 있다.

산악박물관에는 지난 1977년 국내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원정대 장비(1977년)를 비롯한 시대별 등산도구와 등산 관련 서적 등 다양한 자료가 전시돼 있다.

북한산 생태탐방연수원에 대한 호평이 이어짐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지리산국립공원에 120억원의 예산을 투입, 건축면적 2949㎡규모의 생태탐방연수원을 짓고 있다.

광주시는 애초 무등산의 국립공원 승격을 기념하기 위해 250억원을 투입해 가사문학관의 사상 연구와 지질조사 자료, 역사 자료 등 무등산 주변의 역사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국립 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자연사박물관의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시 김동수 공원녹지 과장은 "생태체험체험관은 안전한 산행을 위한 등산교육 등 산과 관련된 교육은 물론 산악박물관 운영을 통해 산악 메카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면서 "국립시설인 만큼 전액 국비로 건립되고 운영되며, 애초 계획했던 자연사박물관 건립은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자수성가 '1조원 클럽' 6명 중 2명 광주·전남 출신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현주

이중근

광주출신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순천출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개인 재산 1조원이 넘는 '1조원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국내에 6명에 불과한 '자수성가형' 1조원 부자에도 포함됐다.

1일 재벌닷컴이 국내 400대 부자들의 개인 재산을 평가한 결과, '1조원 클럽'에 드는 거부는 모두 28명으로 나타났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13조원에 육박하는 재산으로 최고 부자 자리를 지켰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등 상장사와 삼성에버랜드 등 비상장사 주식, 배당금, 이태원 소재 주택과 지방 소재 부동산 등을 합친 재산이 12조8340억원으로 압도적인 1위였다. 뒤를 이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6조8220억원)이 2위를 차지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3조8650억원)이 3위,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3조4840억원)이 4위였다.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1조6590억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1조2740억원), 이서현 제일모직 부사장(1조1470억원) 등 이건희 회장 가족 5명의 재산은 20조7790억원에 달했다.

28명 가운데 광주 출신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개인재산 1조2650억원으로 19번째 부자였다. 박 회장은 2007년 인사이트 펀드를 성공시켜 거부 반열에 올랐다.

순천 출신 '건설 재벌'로 알려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1조860억원의 개인재산으로 24위였다. 이 회장은 국내 주택건설업계에 '임대주택'이라는 상품을 등장시켰다. 분양 전환을 통해 차익을 거두며 재산을 급격히 늘렸다.

'1조원 클럽' 부자 가운데 자수성가형 부자는 6명(21.4%)이었는데 게임업체 넥슨의 창업자인 김정주 NXC 회장이 1조9020억원을 보유해 전체 11위, 자수성가형 부자 1위를 차지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전남도 민선5기 최대규모 인사 앞두고 '술렁'

산하기관·부단체장 등 17일 이후 단행 예정

전남도가 박준영지사 체제 이후 최대 규모의 간부인사 단행을 앞두고 있어 벌써부터 관가의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전남개발공사 사장을 새로 선임한데 이어 조만간 산하 기관장과 부시장·부군수 등 부단체장 및 본청 실국장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인사 폭은 산하기관의 장 및 사무처장 5명, 부단체장 8명, 3급 부이사관 신규 수요 3명으로 박 지사 취임이후 9년만에 최대 규모다.

산하기관의 경우 전남도환경산업진흥원장이 조만간 박 지사의 결재로 선임될 예정이다. 재공모를 통해 3명이 응시한 가운데 복수후보가 추천된 상태다.

전승현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이 최근 전남개발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이 되는 체육회 사무처장직에는 도 본청 기술직 3급이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높다. 건설협회 전남도회 사무처장 자리도 현 처장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관례대로 퇴임을 앞둔 도 본청 3급이 자리를 옮길지 아니면 현 처장이 연임할지 관심이다.

전남도와 광주시가 번갈아 맡는 남도학숙 사무처장직도 이번에 전남도 몫으로 넘어와 정년을 앞둔 3~4급들이 3년 임기를 노리고 물밑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본청에서는 3급 부이사관 수요가 3자리(경제산업국장,광양부시장, 해양수산과학원장) 발생해 치열한 승진 및 전보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최대 관심사는 부단체장 인사와 맞물려있는 광양부시장 자리다. 7월부터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된 광양부시장직은 3선인 이성웅 광양시장의 남은 임기 1년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인기가 높다. 조직개편으로 4급에서 3급으로 조정되는 해양수산과학원장직도 자체 승진일지 여부가 관심을 끈다.

부단체장직은 광양부시장을 포함해 8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고흥·완도가 퇴임을 앞두고 공로연수에 들어가고 함평은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3년 제한'에 걸려 교체가 예상되는 곳은 순천·담양·영암·신안 등 4곳이다. 특히 순천은 정원박람회 마무리를 위해 교체대상에서 제외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도의회 회기가 끝나는 17일이후 곧바로 인사를 단행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설왕설래를 막기위해서도 공정한 원칙아래 빨리 끝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여성주간 '4대악 추방 행사'

1일부터 오는 7일까지 이어지는 여성주간을 기념해 '4대악 추방 행사'가 1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후문에서 열렸다. 광주 여성민우회 회원들이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에 대한 추방을 알리는 피켓을 들고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구명조끼 보급사업'도 지역차별

전남 14.4%… 경남은 39%나

해양수산부의 부산·경남지역 우대와 전남 홀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명조끼 보급사업'에서도 지역차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황주홍 의원이 1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입수한 '팽창식 구명조끼 10만개 보급 계획'에 따르면 전남은 전국 어선의 45.1%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도내 선박의 구명조끼 보급 비율은 14.4%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경남지역의 경우 전국 어선의 21.1%밖에 보유하지 않고 있으나 구명조끼 보급 비율은 39.0%나 됐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국가의 정책은 이해할 만한 기준에 따라 시행돼야 한다"며 "해양수산부는 어선비율을 기준으로 전남지역에 더 많은 구명조끼를 보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 독거노인 80%가 여성

국민연금 가입 낮아 생활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전남지역의 여성노인 단독가구가 전체 독거노인의 80%가량을 차지하고, 대부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노후가 막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치매 유병률도 높아 여성 노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전남도 출현기관인 전남여성플라자가 제18회 여성주간(1~7일)을 맞아 발표한 여성정책 연구 자료인 '동향과 전망'에 따르면 전남의 65세 이상 독거노인 인구(2012년 전남성인지 통계)는 9만840명으로 전체 독거노인(11만3683명) 중 79.9%에 달했다.

문제는 여성 독거 노인들이 가난과 질병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전남지역 65세 이상 여성 중 74.9%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였으며 남성은 25.1%였다. 반면, 60대 이상 국민연금수급자는 남성은 68.9%였지만 여성은 36.7%에 그쳤다.

■ 전남 여성 독거노인 현황 (단위: 명)

		독거노인		
		계	남자	여자
전국	명	1,066,365	216,181	850,184
	비율	100%	20.3%	79.7%
전남	명	100,256	15,413	84,843
	비율	100%	15.4%	84.6%

여성의 경우 현재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해 정부의 지원에 의지해 살아가면서 국민연금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알츠하이머 유병률은 여성이 9.9%로 남성(7.6%)에 비해 높았고, 배후자가 없는 독거 노인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워 우울증 등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는 구체적인 사례 파악을 위해 나주, 영암, 여수, 고흥 등 여성 독고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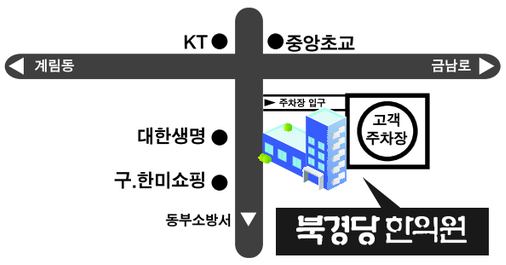
전남여성플라자 구길두 연구원은 "현장 실태 조사를 통해 여성 독거노인의 삶을 진단해 보고, 지역 경로당과 폐교를 활용해 여성 노인들이 공동 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연구 중이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

50년 전통 대를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비만클리닉

한의학 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진료문의 062)227-7575

진/료/시/간
평 일 : 오전9시~오전7시
토요일 : 오전9시~오전4시
일요일휴진,공휴일은 오전진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30-중-2696호

사 원 모 집

사계절 푸르른 양잔디, 친환경 나비의 고장 함평다이너스티 CC에서 함께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부문
- 웨이터, 웨이츄레스, 주부사원(신입 및 경력) 0명
- 조리사 0명

■ 자격요건
- 고졸이상 학력 취득자
- 경력자 우대

■ 급 여
- 연봉제 1,900만원이상(퇴직금 별도)
- 경력자 면접 후 결정(이력서 우측상단에 희망연봉 기재)

■ 복리후생
4대보험 가입, 숙식제공, 각종 수당 지급, 경조사지원, 우수사원포상, 단체상해보험가입, 교통비 지급 등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전형방법
- 우편 및 이메일, 방문 접수
- 접수기간 : 충원시까지(충원시 조기마감)
- 서류접수 후 면접일자 개별통보

접 수 처
- 주 소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1-6
- 담 당 : 경영지원팀 오승태 부팀장
- 전 화 : 061)320-7717
- 팩 스 : 061)320-7710
- 이메일 : seungtae01@naver.com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스마트폰 비즈니스를 선도 할
전국지사 / 대리점 및 딜러 모집

• 모든 기술 제반 본사 지원!
• 영업/마케팅을 통한 확실한 수익보장!
• 개인/기업 누구나 참여 가능!

더 가온의 서비스란?

▶ 스마트폰으로 상대방의 명함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스마트 명함

▶ 오프라인의 출입카드를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출입카드

▶ 강력한 스마트폰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스마트폰 서비스

<특허출원>
10-2013-0019348

" 당신의 성공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 드립니다 "

The Gaon
주식회사 더 가온
☎ 02)6925-2558/ 010-8794-7609
www.thegaon.co.kr

2013년도 영광군향우장학회
장학생모집

재단법인 이형만 향우장학재단은 재광 영광군향우회가족 중에 안정적인 학업을 지원하고, 자립기반을 제공하고자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선발합니다.

Ⅰ. 지원자격 및 선발인원
○지원자격
– 광주시 관내 거주 시민으로 중, 고등학생 ~ 대학생
– 단, 2012년 8월 1일 현재 주민등록이 된 자에 한함
– 광주시민으로 무연고, 세대주, 가족수, 개인상황 등 고려
○선발예정인원 : 총22명 중 광주지역 11명, 영광지역 11명(영광군에서 선발)
(중학생 0명, 고교생 0명, 대학생 0명)

Ⅱ. 구비서류
○장학금 신청서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해당 학교장 또는 기관장추천서 1부
○기타서류 : 통장사본 (본인 명의에 한함)

Ⅲ. 선발일정
○서류접수 : 2013. 7. 1(월) ~ 7월 31일(수)
○최종선정 : 2013. 8월경 발표 (2013년 장학 회보에 발표)
○장학금 지급 및 증서 수여식 : 2013. 9월 초 영광군민의 날(예정)

Ⅵ. 신청방법
○신청방법 : 방문 접수(7월 31일까지)
○신청 및 문의처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404 염주체육관 117호,
사무총장 강 대 의
www.edaynews.com나 '재영광군향우회카페'
http://cafe.naver.com/yeonggwanggun을 통해 먼저 발표됩니다.
yug42@naver.com/edaynews@paran.com으로도
장학신청서 접수를 환영합니다.
T. 010-4192-5182 / 062-673-0419
○신청양식 : 신청서 상단 우측 별도 양식 참조

Ⅴ. 유의사항
○모든 제출 서류는 장학생을 위한 간략하고 최소화된 서류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발이 취소됩니다.
○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영광군민은 영광군청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재광영광군향우가족중 광주시민은 향우장학회사무실로 우편접수하시면됩니다